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3. 08. 30.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 같이

- 1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찻네
- 2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 3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 4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후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예레미야 29장 11~14절

다 같이

- 11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 12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 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 14 이것은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때로 신앙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않거나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인간들은 그저 돈에 대한 생각, 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사상이나 이념에 대한 생각만 골똘히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며 제대로 살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소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으로 몰고 가신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가장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게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질 때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때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에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또 소망은 어떻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소망, 이뤄지고야 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가족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말씀을 삶의 대안으로 삼아 평안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생각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주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고로 우리가 구하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거나 정욕에 따라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구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큰 불신앙입니까? 그리고 불행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부르짖지 않고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부흥회, 특별새벽기도, 또한 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간구해서 반드시 응답받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만큼 중요한 말도 없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회복을 말합니다. 겉 사람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회복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 회복을 위해 전제되는 것은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고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그 말씀에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영적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것이 안 된다, 저것이 안 된다, 이것이 안 풀린다, 저것이 안 풀린다, 힘들어 하고 괴로워합니다만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래서 영적으로 변화되는 회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영적 회복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의 굴레에 감겼으며 구덩이 속에 빠졌는지를 알고 십자가 앞에 나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육의 회복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다 받고 형통한 가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 기도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눈 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눔

다 같이

1.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했던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나눠봅시다.
2. 앞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가정/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증보 기도

다 같이

1. 큰빛은혜교회의 예비하신 건축(건물, 교회, 땅)이 속히 이루도록
2. 믿음 좋은 장로, 권사, 집사, 청년들과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오도록
3. 산위에교회, 이스라엘 회복, 컴패션 아이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
4. 홈리스, 버스킹, 어라이즈 워십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